

말 뿐인 인권보호 대책...노동계 “변화 체감 어려워”

2025 결산 뉴스 플러스

〈3〉지게차 인권유린 사건 그 후
외국인노동자 근로 환경은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광주일보 7월 24일 7면〉 이후 5개월여가 지났지만, 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는 첫 발조차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직후 지자체와 노동당국은 앞다퉀 인권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노동자 A(31)씨가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중 비닐과 테이프로 벽돌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노동자들은 이같은 고통을 제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조종하는 모습도 비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 이후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한국인 지게차 기사와 이를 방조한 외국인노동자 2명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피해 근로자는 다른 업체로 옮겨 지자체 기본적 실태조사조차 안해 고용허가제 등 근본적 개선 없어 유사한 인권 침해 반복 지적

전남도, 임시보호소 2곳 설치 추진
광주시, 전문 상담체계 운영키로

A씨가 일하던 업체는 근로감독 결과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돼 최대 3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업체를 떠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 부시장 주재 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못가 “통역 인력을 못 구하겠다”는 등 이유로 조사를 포기했다.

전남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공표했지만, 조사 시기를 내년 2~3월께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말에야 설문조사 예산 5400



지난 7월 나주시 반남면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괴롭히는 모습이 공개된 영상.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만원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연구용역 심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설문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까지 거치려면 최소한 내년 2월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만, 전남도는 내년 중으로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을 동·서부권에 각각 1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과 소규모 사업장 대상 현장 방문 교육을 확

대하고 외국인통합지원 콜센터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해 연간 1만1000건 수준인 상담 이용을 2배가량 늘리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안심병원 75곳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의료비 자부담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국·도·시·군·구별 문화·체육 활동 지원도 추진하는 건 그나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법률·노무·산재 분야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문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광주고용노동청 역시 공인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신고·상담의 날’을 매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이주노동자의 이직 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탓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터를 옮기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에 앞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족한 용역 예산을 끌어모으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실태 조사가 늦어지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노동 인권 교육 참여 인원을 늘리고,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중 계약’ 된 부지 구입 논란

소유 관계 정리되지 않은 사실 알고도 매매 계약 체결해 특혜 의혹도

군 “문제 정리됐다고 해서 거래”

강진군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계약’ 된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차질 우려 뿐 아니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도암면 학장리 일대 옛 베이스볼파크 인근 부지가 다른 업체에게 팔린 땅임을 알고도 구입했다.

군은 당시 ‘체육용지’로 쓰일 10만여㎡를 현 소유자인 A 업체와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입가는 62억여원으로 감정됐으며 군은 계약금 6억원도 지급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지난 2023년 7월 B 업체에게 해당 부지를 매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했다.

A 업체는 B 업체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요구했고, 이후로도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B 업체의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B 업체 측은 계약금과 잔금 등 일부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계약 이행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또 A 업체가 B 업체에게 계약해제 통지만 보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업체는 지난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해당 부지를 군에 처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지난달 20일 인용돼 부지의 거래는 불가해진 상태다.

군은 두 업체 간 소유권 분쟁 문제를 감정평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소유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인 만큼 매매 금액이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에 있는 강진베이스볼파크 경기장 부지. 강진군은 해당 부지에 대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 제공>

나 현황은 군이 자세히 알기 어렵다”며 “A 업체 측으로부터 소유권 문제가 정리됐다고 전해들어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중도금·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부지 취득 절차가 지연되고, 결국 파크골프장 조성 일정도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잔금 지급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에 걸

쳐 완납하는 구조라 분쟁은 그 전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문제 발생 시 지급액의 2배를 반환’하는 취지의 조항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도 일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ggi@kangju.co.kr

신안 무인도 여객선 좌초 사건 선장·조타수 등 3명 구속기소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1일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와 1등 항해사 B(39)씨와 조타수 C(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협수로 구간에서 여객선을 부주의하게 운행해 신안군 장산면 죽도에 충돌하게 해 승객 267명 중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을 운항하는 중 선장실에 머무르면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시청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으며, C씨는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죽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